

與 ‘거국내각’ 급선회...野 “진상규명부터 하라”

靑, 이원종·우병우·안종범·문고리 3인방 등 교체 ... 새 민정수석 최재경
국민의당 “또 검찰출신 민정수석 ... 검찰통제 통해 상황 무마 시도 아니냐”



최순실(60)씨가 30일 오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발 브리티시어어웨즈 BA017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 10명 전원에게 일괄 사퇴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관련기사 2·3·4·5면>
또 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의 사표도 전격 수리했다. 이어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보수석에 배성래 전 국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인 신속하고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위법사항이 있는 인사들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후임이 또 검찰 출신임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통제를 통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청와대 참모진 교체만으로는 정국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는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대

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최고위는 또 이날 오전 귀국한 최순실씨를 긴급체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고, 이른바 ‘최순실 비선 논란’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와 기관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검찰 등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최고위가 내놓은 대책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애초 ‘책임총리’ 개념의 완벽한 구원을 요구하던 새누리당이 이처럼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통상적 수준의 해법으로는 풀릴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동반 사퇴가 의제로 오르지 않았지만, 만약 당의 이번 요청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퇴도 불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30일 새누리당이 꺼내 든 ‘거국중립내각 카드’에 “지금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일제히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의 지난 28일 특검협상 중단 선언으로 당분간 여여 간 특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최순실 극비 귀국...野 “당장 체포 수사”

검찰,靑서상자 7개 분량 압수
‘비선 실세’ 의혹의 ‘몸통’ 격인 최순실(60)씨가 30일 오전 영국에서 전격 입국함에 따라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가 오전 7시 30분께 브리티시어어웨이스 항공편으로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자진 귀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르면 31일,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검찰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자금 유용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의혹 전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 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하고 이들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정씨가 합격하도록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조사 대상이다.
이외 함께 지난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차질을 빚었던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0일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 집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연남뉴스

또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오후 정현식(63) K스포츠재단 전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전남엔 안봉근·정호성,조인근 전 청와대 비서관, 김중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관련 핵심 인물의 자택을 대거 압수수색했다.
한편 정의당은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오후 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해 이정희 2차장검사와 면담해 최씨를 체포 또는 구속수사 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안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새누리당도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검찰 등이 최씨를 긴급체포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연남뉴스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사회인야구 ‘자연환경’ ‘카멋진남’우승



광주일보가 주최한 ‘아로마라이프배 제 6회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전이 30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32개 팀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등·광일리로 나뉘어 치러졌다. 무등리그 결승전이 끝난 뒤 김여송(앞줄 왼쪽에서 아홉번째) 광주일보 사장과 대회를 후원한 아로마라이프 이학재(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회장이 우승팀인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 준우승팀인 타요바리타스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일리그는 ‘카멋진남’이 우승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20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하야” 전국에 타오르는 촛불 광주서 시국대회... 전남대 교수들 시국선언

50개국 해외동포도 시국성명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 농단과 관련 시국선언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남대 교수 143명은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은 각각 지난 28일과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행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캠퍼스에서는 박 대통령 자신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계속 나붙고 있다.
주말인 지난 29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는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자신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대회가 열렸다. 다음달 5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예정돼 있다.
29일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회의’가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 전북본부 등 4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시민과 근로자, 학생 등 2만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2000여 명)이 모여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서 처음 열린 주말 집회에는 대선행보를 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주민 의원, 정의당 노회찬·이정미·김종태 의원, 무소속 김중훈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경찰은 광화문 복단에 저지선을 치고 시위대의 전진을 막았고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양측 간 밤늦게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부산, 마산, 인천,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일제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민중화교수협의회(민교협)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민중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 28일 “박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도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가 포함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50개국 재외동포’ 일동은 이날 시국성명서를 내고 “해외에서 창피해서 낯을 들고 살 수가 없다”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압도적인 프리미엄의 시작

광주를 압도하는 프리미엄의 시작 **금호지구 대광 로제비앙**

금호지구의 **새프리미엄** 시대를 열다
금호지구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규 명품 아파트에서 광주를 압도하는 교통과 자연, 교육에 남다른 품격까지! 광주에 없었던 압도적인 프리미엄이 찾아옵니다.

지하철 2호선 금호역(예정)

광주 안밖 계속 교통망

신환경 단지구성

든든한 학군과 학원가 형성

상무지구

봉암지구

11월 4일 OPEN

토지계약 100% 완료

지구단위계획 사전심의완료

코리아신탁 자금관리

4Bay·4Room 혁신설계(일부제외)

84㎡·66㎡ A·B 총 352세대 (예정)

문의 062) **369-0004**